

시 험 장 에 서 절 대 흔 들 리 지 않 는 전 략

Signature

VER 2.0

시그니처 수능영어 기출분석서 2.0

김현철(시그니처)



수능 영어 독해의 핵심

Paraphrasing (재진술) Training

수능영어의 근간은 결국 '재진술'이라고 하는 Paraphrasing에 있습니다. 하지만 독해력이 조금 모자란 친구들은 어떤 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재진술 문장들부터 시작해서, G-S 구조까지 우리가 직접 대응시키는 주관식 문항들을 답하는 (단순히 빈칸만 주관식으로 뚫어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용어를 문장내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사실 수능영어 지문을 구성하는 핵심원리이기 때문에 여러 유형 (어휘, 문장삽입, 빈칸추론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15문제에 대해서는 맞고 틀리고에 대한 고민은 좀 줄이고, 정말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해설지가 가르키고있는 생각의 방향을 따라가보면, 수능에서 어떤 글 읽기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01** Science is making the future, and nations are busy making future scientists. The more science that emerges from this investment, the greater the need for us to follow the gist of the science with sufficient understanding. In other words, if we the ordinary people are to keep pace with science, we need more science writers, and more science writing that is clear, wise and eloquent, and that demands to be read.

두 부분간의 관계가 'In other words'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밑줄 친 부분에서 과학작가 (science writers) 들이 필요하고, 과학 글쓰기 (science writing) 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In other words 앞에서 찾아 쓰시오.

- 02** Why bother with the history of everything? Today, we teach and learn about our world in fragments. In literature classes you don't learn about genes; in physics classes you don't learn about human evolution. So you get a partial view of the world.

밑줄 친 a partial view는 역사가 제시되고 있는 문두의 내용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응해보세요.

- 03** Any fleeting thoughts suggesting that we might be at fault typically are overcome by more powerful self-justifying thoughts: "I don't mean any harm. I'm just! I'm fair! It's the others who are wrong!"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is nature of the human mind as its natural state. In other words, humans don't have to learn self-justifying, self-serving, self-deceptive thinking and behavior.

밑줄 친 부분에서 '학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쓰시오.

- 04** Cultural differences in the meaning of work can manifest themselves in other aspects as well. For example, in American culture, it is easy to think of work simply as a means to accumulate money and make a living. In this situation, we would expect to find [more / less] movement of individuals from one job to another because of the individual's social obligations toward the work organization to which he or she belongs and to the people comprising that organization.

밑줄 쳐져 있는 because of the individual's social obligations는 For example 내부에서 American culture의 특징과 연관지어 읽어봤을 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어휘 문제의 정답을 고르시오.

- 05** A classic examp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perception is the world snow, Eskimo languages have as many as 32 different words for snow. For instance, the Eskimo have different words for falling snow, snow on the ground, snow packed as hard as ice, slushy snow, wind-driven snow, and what we might call "cornmeal" snow. The ancient Aztec languages of Mexico, in contrast, used only one word to mean snow, cold, and ice. Thus, if the Sapir-Whorf hypothesis is correct and we can perceive only things that we have words for, the Aztecs perceived snow, cold, and ice as one and the same phenomenon.

밑줄친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perception은 그 다음에 그어진 2개의 밑줄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06** Since photographs did such a good job of representing things as they existed in the world, painters were freed to look [inward / outward] and represent things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rendering emotion in the color, volume, line, and spatial configurations native to the painter's art.

다음 중 정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무엇인지 써보시오. 이 문장에서 어떠한 지점에서 '대조의 접속사' 등의 내용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두 개의 부류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해서 서술하여 답의 근거로 사용해보시오.

- 07** Studies indicate that motivational arousal is greatest for tasks that are assumed to be of moderate difficulty. If success rate is considered very high or very low, motivational arousal is _____. In other words, we try hardest for things we consider challenging but not nearly impossible.

① weakened ② mobilized ③ fluctuated ④ stabilized ⑤ alternated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고, 그렇게 고른 근거를 잡아보시오. 밑줄 친 부분은 주어진 문장에 어느부분에 대조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연결해 보시오.

08 It is a principle in many legal systems that a competent adult has a right to refuse any, even lifesaving, treatment. This principle applies to the treatment of physical illness. It does not apply however in many countries to **those with mental illness**. Take the case of England, where it is the Mental Health Act that governs _____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

- ① alternative ② compulsory ③ adjunctive ④ incremental ⑤ preventive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고, 그렇게 고른 근거를 잡아보시오. 밑줄 친 부분은 주어진 문장에 어느부분에 대조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연결해보시오.

09 **Peripheral vision(=A) _____ (=B) to lead our eye movements so that our fovea visits all the interesting and crucial parts of our visual field (=C).** Our eyes don't scan our environment randomly. They move so as to focus our fovea on important things, the most important ones (usually) first. The fuzzy cues on the outskirts of our visual field provide the data that helps our brain plan where to move our eyes, and in what order.

*peripheral vision 주변시 **fovea 중심와(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시각 세포가 밀집된 오목한 부분)
***blob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

- ① makes the useless things stand out
② provides low-resolution cues
③ disturbs our concentration
④ prompts our unconsciousness
⑤ activates acoustic ability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되, 빈칸 문장에 나누어진 A,B,C 근거를 밑줄 친 부분에 일대일 대응해서, 어디가 A이고, 어디가 B이고, 어디가 C인지 대응하면서 근거를 찾아보시오.

10 Many people, including many scientists, tend to confuse the mind with the brain, but they are really very different things. The brain is a material network of neurons, synapses, and biochemicals. The mind is a flow of subjective experiences, such as pain, pleasure, anger and love. Biologists assume that the brain somehow produces the mind, and that biochemical reactions in billions of neurons somehow produce experiences such as pain and love. (A) , so far we have absolutely no explanation for how the mind emerges from the brain.

- ① In addition ② However ③ Therefore ④ For example

(A)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접속사를 고르고, 두 문장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밝히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오.

PART A

이해영역 (Comprehension)

빈칸추론 유의사항 (5) 인과는 정해져있다 - B style

인과가 주어지는 경우

인과추론에 대한 빈칸추론의 경우, 두 번째 스타일의 경우 원인과 결과를 그대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 시켜보자면, A->B이다. 그렇다면, A'-> (빈칸)의 구조이거나, 아니면 대조적으로 인과를 줘서, ~A->~B이다. 그렇다면 A-> (빈칸)의 구조 (물론 원인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렇게 주어진 인과를 정확히 Catch하지 못하면 안드로메다의 정답을 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추론은 정말 엄격하게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주관이 1도 들어가선 안됩니다. 이를 잘 Catch해서, 아래에서 제가 할 말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Q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13학년도 수능]

In Belding's ground squirrels, males leave home and females mature in their natal area. This male-biased dispersal creates an imbalance in the way males and females are related to those individuals around them — females find themselves surrounded by relatives, while males are generally in areas with complete strangers. This asymmetry translates into females who warn close kin by emitting alarm calls, while males generally do not emit calls since their dispersal from their natal areas means their blood kin typically do not benefit from such a warning. Further support for the kinship-based alarm-calling hypothesis includes Sherman's finding that in the rare instances when females do move away from their natal groups and into groups with far fewer relatives, they _____.

- ① end up acquiring the alarm calls of the new group
- ② make constant attempts to bring their blood kin along
- ③ display a tendency to become more active and cooperative
- ④ emit alarm calls less frequently than do native females
- ⑤ adopt a more elaborate defense mechanism than alarm calls

Solution

사실 첫 번째 Case보다 두 번째 case가 시험장에서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든 비슷한말을 찾아서 넣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비벼서 넣으면 맞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대응해서 근거문장을 찾지 못하면 문제에서 박살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령 A->B라는 인과를 미리 줬었는데, 그 문장을 대충 읽고 (혹은 인식하지 못하고), ~A 이면? 빈칸은 어찌될까?가 정답인데, 거기에다가 갈피를 못잡고, ~B를 집어넣는게 아니라, C,D,E,F 등 자신의 마음대로 문제를 풀어 답을 써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mprehension

In Belding's ground squirrels, males leave home and females mature in their natal area.

- Belding 얼룩 다람쥐는, 수컷들이 집을 떠나고, 암컷들은 그들 친족 지역에 머물러있다고 합니다.

This male-biased dispersal creates an imbalance in the way males and females are related to those individuals around them — females find themselves surrounded by relatives, while males are generally in areas with complete strangers.

- 이렇게 남성중심적인 분리 (male-biased dispersal - 수컷이 집을 떠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은 수컷과 암컷이 그들 주변에 있는 개인들과 관련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만든다고 하고 있네요. 암컷들은 그들이 친족에 의해 둘러싸여있는 반면에, 수컷들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일반적으로 둘러싸여있다고 합니다.

-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수컷 - 친족을 떠나 멀리 있음 / 암컷 - 친족 주변에 있음 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This asymmetry translates into females who warn close kin by emitting alarm calls, while males generally do not emit calls since their dispersal from their natal areas means their blood kin typically do not benefit from such a warning.

- 이러한 불균형은, 암컷은 그들의 가까운 친족들에게 경고할 수 있게끔 alarm call을 방출하고, 수컷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친족 지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들의 혈족이 그러한 경고(alarm call)로부터 이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보자면,

- 수컷 - 친족을 떠나 멀리 있음 - 주변에 친족이 없음 - 그래서 alarm call 울려도 이득 X, 그래서 잘 안올림

- 암컷 - 친족 주변에 있음 - 주변에 친족이 있음 - (그래서 alarm call 울리면 이득 O) - 그래서 올림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컷과 암컷은 결국 '친족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alarm call을 울리느냐 마느냐 라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Further support for the kinship-based alarm-calling hypothesis includes Sherman's finding that

- 이 글에서 주로 작성중인 친족 중심적인 alarm-calling을 더욱 더 지지해주는 sherman이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의 사례들은 어떤 것이냐면

in the rare instances when females do move away from their natal groups and into groups with far fewer relatives, the

- 드문 경우지만, 여성들이 그들의 친족의 지역에서 떠나, 그들의 친족이 아주 적은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빈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인과 빈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 수컷 - 친족을 떠나 멀리 있음 - 주변에 친족이 없음 - 그래서 alarm call 울려도 이득 X, 그래서 잘 안올림

- 암컷 - 친족 주변에 있음 - 주변에 친족이 있음 - (그래서 alarm call 울리면 이득 O) - 그래서 올림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mprehension 로 이 글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친족이 존재한다면(원인, A) - 알람 콜을 울려서 이득이 되게끔함 (결과, B) 이라는 인과가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빈칸에는, 결국 친족이 주변에 없다면 (원인, ~A) 어떻게 되는가? (결과 빈칸)이니까, 결국 그 결과는 ~B가 들어가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득이 될 게 없으니까 알람콜을 울리지 않는다 정도가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④ emit alarm calls less frequently than do native females

- 정답은 4번입니다. 결국 인과추론 빈칸에서 인과가 반대로 뒤집혀져 정답에 들어가는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과는 적극적으로 물을 수 없기때문에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빈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인과는 불과하다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04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13학년도 6월 모의고사]

Lifeline infrastructures are vital systems that support a nation’s economy and quality of life. Modern economies rely on the ability to move goods, people, and information safely and reliably. Adding to their importance is that many of the lifeline systems serve vital roles in disaster recovery. Consequently,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government, business, and the public at large that the flow of services provided by a nation’s infrastructure continues unimpeded in the face of a broad range of natural and technological hazards. The linkage between systems and services is critical to any discussion of infrastructure. Although it is the performance of the hardware (i.e., the highways, pipes, and transmission lines) that is of immediate concern following an earthquake, it is actually the loss of services that these systems provide that is the real loss to the public. Therefore, a high priority in protecting these systems from hazards is ensuring _____.

- ① an early alarm system for economic crises
- ② the durability and stability of transmission lines
- ③ the continuity, or at least the rapid restoration, of service
- ④ a prompt mobilization of experts for disaster control
- ⑤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lifeline systems

04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13학년도 6월 모의고사]

Essentially the same structural forms of politics can nevertheless take on very different “flavors.” For example, a dictatorship can, in theory, be brutal or benevolent; anarchy can, in theory, consist of “mutual aid” or a “war of all against all” that proceeds in the absence of any rule of law whatsoever; democracies can and typically ar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socially oriented as opposed to individualistically oriented. Thus, whatever our answer to the “What is the best structural form of politics?” question, we still want to know what “flavor” this structural form of politics ought to have since _____. Indeed, this is precisely why we vote within a democratic structure: to determine the “flavor” we want that democratic structure to have.

- ① voters ultimately determine a political structure
- ② political structures, in fact, outweigh political “flavors”
- ③ the best structural form of politics is not easy to determine
- ④ political structure, by itself, does not determine political content
- ⑤ each structural form of politics must be valued independently

05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Protopia is a state of becoming, rather than a destination. It is a process. In the protopian mode, things are better today than they were yesterday, although only a little better. It is incremental improvement or mild progress. The “pro” in protopian stems from the notions of process and progress. This subtle progress is not dramatic, not exciting. It is easy to miss because a protopia generates almost as many new problems as new benefits. The problems of today were caused by yesterday’s technological successes, and the technological solutions to today’s problems will cause the problems of tomorrow. This circular expansion of both problems and solutions _____. Ever since the Enlightenment and the invention of science, we’ve managed to create a tiny bit more than we’ve destroyed each year. But that few percent positive difference is compounded over decades into what we might call civilization. Its benefits never star in movies.

*incremental: 증가의 **compound: 조합하다

- ① conceals the limits of innovations at the present time
- ② makes it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with confidence
- ③ motivates us to quickly achieve a protopian civilization
- ④ hides a steady accumulation of small net benefits over time
- ⑤ produces a considerable change in technological successes

05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Research with human runners challenged conventional wisdom and found that the ground-reaction forces at the foot and the shock transmitted up the leg and through the body after impact with the ground _____ as runners moved from extremely compliant to extremely hard running surfaces. As a result, researchers gradually began to believe that runners are subconsciously able to adjust leg stiffness prior to foot strike based on their perceptions of the hardness or stiffness of the surface on which they are running. This view suggests that runners create soft legs that soak up impact forces when they are running on very hard surfaces and stiff legs when they are moving along on yielding terrain. As a result, impact forces passing through the legs are strikingly similar over a wide range of running surface types. Contrary to popular belief, running on concrete is not more damaging to the legs than running on soft sand. [3점]

* compliant: 말랑말랑한 ** terrain: 지형

- ① varied little
- ② decreased a lot
- ③ suddenly peaked
- ④ gradually appeared
- ⑤ were hardly generated

13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2013학년도 수능]

But now rock radio is in seemingly terminal decline and MTV doesn't show many music videos anymore.

Once upon a time, there was only one way to launch a hit album: radio. Nothing else reached as many people, as often. Getting on a radio playlist was difficult, but once a song was in heavy rotation on the radio, it had a high probability of selling. Then, in the 1980s, came MTV, which became the second way to create a hit. (①) It had even more limited capacity for new music, but its influence over a generation was unparalleled. (②) For the music labels, those were good times; it was a brutally competitive business, but it was a business they knew. (③) They understood the rules, and they could earn their keep by working them. (④) So how to market music? (⑤) Labels know the answer lies online, tapping the word-of-mouth forces that are replacing traditional marketing in creating demand, but they're still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how best to do it.

* label: 음반사

13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2019학년도 수능]

A round hill rising above a plain, therefore, would appear on the map as a set of concentric circles, the largest at the base and the smallest near the top.

A major challenge for map-makers is the depiction of hills and valleys, slopes and flatlands collectively called the topography. This can be done in various ways. One is to create an image of sunlight and shadow so that wrinkles of the topography are alternately lit and shaded, creating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hape of the land. (①) Another, technically more accurate way is to draw contour lines. (②) A contour line connects all points that lie at the same elevation. (③) When the contour lines are positioned closely together, the hill's slope is steep; if they lie farther apart, the slope is gentler. (④) Contour lines can represent scarps, hollows, and valleys of the local topography. (⑤) At a glance, they reveal whether the relief in the mapped area is great or small: a "busy" contour map means lots of high relief.

* concentric: 중심이 같은 ** scarp: 가파른 비탈

*** relief: (토지의) 고저, 기복

PART B

기술영역 (Technique)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2) G-S구조/재진술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전에 인트로 부분이나 빈칸에서 얘기했던 GS구조, 아니면 재진술이 문장삽입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에서 예측 가능한 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주어진 문장에 대한 내용이 지문 내에서 어떻게 재진술되는지를 연결함으로써 문제 해결 역시 가능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기 실은 까닭도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G-S, 즉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연결될 수도 있고, 주어진 문장속에 어떤 내용이 재진술 되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2
PART B

Q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2020학년도 사관학교]

Another, unexpected, consequence is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ering them useless.

Initially seen as miracle drugs, antibiotics, once they became widely available, were used not only for bacterial infections, but for everything from the common cold to headaches. (①) Indeed antibiotics were a godsend, drastically improving medicine and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chieved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②) Like many technological fixes, along with the positive benefits of antibiotics came negative side effects. (③) Antibiotics can kill the many beneficial bacteria in the human body, for instance those that promote digestion, along with invasive bacteria. (④) Antibiotic resistance, first a curiosity seen in the laboratory, became common among populations of bacteria exposed to antibiotics. (⑤) In a matter of yea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enicillin, penicillin-destroying staphylococci appeared in hospitals where much of the early use of penicillin had taken place.

* staphylococci: 포도상구균

Solution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에서 Another consequence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아, 내용이 나오다가 주어진 문장을 경계로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걸 기억해둬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정확히 대응시켜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 속에,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ering them useless라는 말과 정답이 되는 4번 선택지 Antibiotic resistance 가 같은 말로 재진술됨으로써 연결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omprehension

Another, unexpected, consequence is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ering them useless.

- 주어진 문장을 봅시다. 기대하지 않은 또 다른 결과는 박테리아가 항생제가 효능을 부여하는 체계를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항생제들(= them = antibiotics)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읽어내고 난 다음 밑에 문장들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Initially seen as miracle drugs, antibiotics, once they became widely available, were used not only for bacterial infections, but for everything from the common cold to headaches.

- 처음에는 '기적의 약'이라고 보였던 항생제는 단순히 박테리아의 감염에 있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단순 감기부터 두통까지 모든 것에 활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①) Indeed antibiotics were a godsend, drastically improving medicine and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chieved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 게다가, 항생제라는 것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었고 (갑작스럽게 발견하게 되었다 그정도의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제약들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예상수명의 증가에 있어서 엄청나게 공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②) Like many technological fixes, along with the positive benefits of antibiotics came negative side effects.

- 많은 기술적 해결책들과 마찬가지로, 항생제의 긍정적인 이득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치되어 있는 구문인데,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문장에는 어디에도 'However, but,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등' 역접과 대조의 접속사가 없지만,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장 자체만으로 항생제의 긍정적인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바뀌는 역접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접속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③) Antibiotics can kill the many beneficial bacteria in the human body, for instance those that promote digestion, along with invasive bacteria.

- 항생제에 대한 저항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이 저항 반응은 분명 앞에 이야기했었던 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는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 부작용에 대한 것인 것 맞죠? 그러면 이걸 'Another consequence'로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4번에 대응 시켜도 매우 잘 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시키고 나면, Antibiotic resistance (항생제에 대한 저항반응)에 대해서 주어진 문장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the ability of bacteria to overcome the mechanisms that give antibiotics their efficacy, rendering them useless. = Antibiotic resistance

- 이렇게 재진술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박테리아가 항생제가 먹히던 메커니즘을 넘어서고, 극복해서 굴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저항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재진술하고 있는 주어진 문장이 4번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갑자기, 이로운 박테리아까지 죽게된다는 내용에서 저항반응으로 왜 넘어가지? 어 소재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응시켜봐도 똑같은 루틴대로 풀 수 있으니 어떻게 풀든 정답을 맞추었다면 글을 잘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RT B

기술영역 (Technique)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3) 과정-순서의 흐름

과정 순서의 흐름은 결국 한문장 한문장 단위끼리만의 연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적혀있는 그 문장이 이 글 전체의 흐름에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즉 이 문장의 역할이 무엇이나에 대한 '위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풀어내는 방식은 어떤 '순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암묵적으로 어떤 구조적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이는 철현이와 은행을 털 것을 준비하였다(a) - 현철이와 철현이는 무기를 갖추는 등 은행 털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b) - 그들은 마침내 은행에 들어가 범주를 시도하려고 하였다(c) - 그러자마자 바로 잠복해있던 경찰관에 의해 진압되었다. (d)

라는 흐름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b 부분이 저 글에서 주어진 문장으로 빠진다면, 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서와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않겠습니까? 이러한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어진 문장들 사이에 연결만으로 따지려면 단절되는 부분이 없기에 찾아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를 제시 할테니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감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Q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As long as you do not run out of copies before completing this process, you will know that you have a sufficient number to go around.

We sometimes solve number problems almost without realizing it. (①) For example, suppose you are conducting a meeting and you want to ensure that everyone there has a copy of the agenda. (②) You can deal with this by labelling each copy of the handout in turn with the initials of each of those present. (③) You have then solved this problem without resorting to arithmetic and without explicit counting. (④) There are numbers at work for us here all the same and they allow precise comparison of one collection with another, even though the members that make up the collections could have entirely different characters, as is the case here, where one set is a collection of people, while the other consists of pieces of paper. (⑤) What numbers allow us to do is to compare the relative size of one set with another.

*arithmetic: 산수

Solution

이 글을 꼼꼼하게 아주, 세심하게 읽으면 물론 'you have then solved this problem~' 부분이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정말로 해결된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정답의 근거를 명확히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주어진 문장을 포함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과 흐름에 맞추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3문제 정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것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Comprehension

As long as you do not run out of copies before completing this process, you will know that you have a sufficient number to go around.

- 주어진 문장부터 보도록 합니다. 주어진 문장에서부터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this process입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이 과정을 완료하기 전에 복사물이 떨어지지 않는 한, 너는 돌아가기에 충분히 충분한 복사물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의 일부인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늘 염두를 뒀어야만 합니다.

We sometimes solve number problems almost without realizing it.

우리는 '숫자와' 관련된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 한채로 해결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General)

(①) For example, suppose you are conducting a meeting and you want to ensure that everyone there has a copy of the agenda. -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Specific)

예를 들어서, 네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제에 대한 복사물을 가질 수 있게끔 확실히 하고 싶다고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이건 '숫자와 관련된 문제' 일 것입니다. 일단 목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사물을 갖는 것이군요!

(②) You can deal with **this** by labelling each copy of the handout in turn with the initials of each of those present.

- 여기서 this는 모든 사람들이 복사물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일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의 첫 이니셜을 따서, 차례대로 적음으로써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결하는 과정 (1)이 바로 각각의 복사물에 사람들의 차례대로 이니셜을 적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You have then solved this problem without resorting to arithmetic and without explicit counting. (④)

- 그리고 '산수와 명시적인 계산없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니셜만 적은 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맞는가?라는 짝 짝함을 통해서 일단 생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고민해보도록 하죠. 2번 문장은 앞의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대명사 this 역시 문제가 없었으므로 제외를 하면 가장 헛갈리는 것은 결국 3번과 4번 사이에 있는 저 문장 앞에 와야하나, 뒤에 와야하나 일 것입니다. 실제로 4번을 짚은 학생의 비율이 28%나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순서의 흐름에서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3문장을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deal with this by labelling each copy of the handout in turn with the initials of each of those present.

(1) 각각 복사물에 이니셜을 붙임으로써 세기 시작함 (문제 해결 과정1) ->

As long as you do not run out of copies before completing this process, you will know that you have a sufficient number to go around. (2) 그렇게 계속 세어 나가서, 복사물이 이 과정이 끝나기전에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주기에 충분한 숫자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문제해결 과정2, 문제의 해결) ->

You have then solved this problem without resorting to arithmetic and without explicit counting.

(3) then solved this problem, 앞의 과정이 문제의 해결이었으므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언급.

이라는 이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순서의 흐름을 보았을 때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4번으로 하게 되면 논리적인 흐름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Comprehension You have then solved this problem without resorting to arithmetic and without explicit counting.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언급) - As long as you do not run out of copies before completing this process, you will know that you have a sufficient number to go around. (근데 왜 세고있음? 이미 다 문제해결 됐는데.)

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미 충분한 숫자로 주었다라는 문제를 해결이 됐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you가 또 copies을 세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답은 3번이 적절합니다.

There are numbers at work for us here all the same and they allow precise comparison of one collection with another, even though the members that make up the collections could have entirely different characters, as is the case here, where one set is a collection of people, while the other consists of pieces of paper. (㉟) What numbers allow us to do is to compare the relative size of one set with another.

-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얘기로 넘어왔으니, 주어진 문장이 예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4번 뒷문장과, 5번 문장은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Comment] 지문이 나뉘면 나누어서 읽는다! 이 지문은 '정치적 구조'와 '정치적 특징'을 구분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러한 구분이 선택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있어! 그리고 since라는 인과 접속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문 역시 인과에서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 꼼꼼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자.

[Comprehension] Essentially the same structural forms of politics can nevertheless take on very different "flavors."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적 형태의 정치는 아주 다른 특징을 띠 수 있다. 아래에 For example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는 'flavors'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구체화 될거라고 생각해보 수 있어!

For example, a dictatorship(=the same structural forms of politics) can, in theory, be brutal or benevolent(=flavors); anarchy(=the same structural forms of politics) can, in theory, consist of "mutual aid" or a "war of all against all" (=flavors) that proceeds in the absence of any rule of law whatsoever; democracies(=the same structural forms of politics) can and typically ar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socially oriented as opposed to individualistically oriented. (=flavors)

이렇게 대응시켜서 읽을 수 있겠어? 결국 G-S구조임을 이해하면,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있어서 빠른 이해와 더불어, 이것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건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어!

읽어보자면 독재국가는 이론적으로는 잔혹하거나 자비로울 수 있고, 무정부 상태는 상호협력이나 만인의 투쟁 상태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 국가는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 지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정도의 측면에서 구별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는 같은 정치체제 내에서 여러 가지의 '맛' (flavors)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뿐이라고 할 수 있어!

Thus, whatever our answer to the "What is the best structural form of politics?" question, we still want to know what "flavor" this structural form of politics ought to have since _____.

그러므로, '무엇이 가장 최고의 정치체제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무엇이 되었든간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정치체제의 '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빈칸이라고 나와있어.

왜 맛이 궁금해야 할까? 그건 앞에서 이미 다 읽었던 내용이야. 왜냐하면 같은 정치체제 내에서도 다른 flavors 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즉 하나의 정치체제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것의 구체적인 특징 (flavors)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빈칸) 그것의 특징이 궁금해지는거지! 아래의 문장까지 마저 읽어서 답을 확실히 내보자!

Indeed, this is precisely why we vote within a democratic structure: to determine the "flavor" we want that democratic structure to have. 게다가, this (=빈칸)은 우리가 민주주의 구조내에서 투표를 하는 이유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민주적 구조가 가지길 원하는 'flavor'를 결정하기 위함이라. 즉 flavor가 다 다를 수 있으니 그것을 결정하기 위함이라는거지. 빈칸이 더더욱 뚜렷해진 것 같아 선택지를 보도록하자.

① voters ultimately determine a political structure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정치적 내용 (flavor)'가 다르기 때문 이라는 선택지가 들어가야만 해. 근데 여기서는 정치적 구조를 유권자가 결정한다라는 것은 빈칸에 들어갈 마과 무관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어. 오답!

② political structures, in fact, outweigh political "flavors"

정치적 구조가 정치적 내용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 중요도의 차이는 모르겠으나, 빈칸에 들어갈 방향성은 '정치적 내용'이 정치적 구조가 같더라도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어.

④ political structure, by itself, does not determine political content

정답은 4번이겠지? 정치적 구조 그자체로는, 정치적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 결국 flavors 들을 structure가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내용! 정답!

[구문] whatever our answer to the "What is the best structural form of politics?" question, we still want to know what "flavor" this structural form of politics ought to have

whatever 복합관계대명사가 부사구로 와있다. 해석은 ~ 무엇이든시간어로 하는것이 적절하다.

[단어] flavor 특징, (독특한) 맛, 품미 take on ~을 띠다 dictatorship 독재 정부 [국가] brutal 잔혹한 benevolent 자애로운, 자비로운 anarchy 무정부 상태 as opposed to ~와는 대조적으로 individualistically 개인주의적으로

[해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정치 형태는 매우 다른 "특징"을 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재 국가는 이론적으로 잔혹하거나 자비로울 수가 있다. 무정부 상태는 이론적으로 "상호 협력"이나 혹은 어떤 경우에도 법의 어떤 지배 없이 진행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쟁"으로 되어버릴 수가 있다. 민주 국가는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지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정도의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고 그리고 구별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구조의 정치 형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무엇이든지, 정치 구조 하나만으로는 정치적인 내용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구조의 정치 형태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사실 이리해서 우리는 정확히 그런 민주적인 구조가 갖기를 원하는 "특징"을 결정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구조" "안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Comment] 이 문제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추론에 기반을 두고 출제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에서 제시했던 두가지 스타일중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제시되고, 그것에 대한 재진술을 묻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 어떤 말인지 글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자!

[Comprehension] Protopia is a state of becoming, rather than a destination. It is a process. In the protopian mode, things are better today than they were yesterday, although only a little better.

프로토피아는 목적지라기 보단, 생성의 상태라고 하고 있네. 이런 과정이라. 프로토피아적인 방식에서는 그것이 아주 조금이긴 하더라도, 어제 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네.

프로토피아라는게 뭔지 알아?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배경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수능이니까, 너무 풀지말고, 아 그게 그런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읽어내려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프로토피아의 핵심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

It is incremental improvement or mild progress. The “pro” in protopian stems from the notions of process and progress.

이건 점진적인 개선이고, 가벼운 진보라고 할 수 있네. 프로토피아에 있어서의 '프로'라는 말은, 과정과 진보의 개념으로부터 발생한거래. 결국 이 문장 역시 In the protopian mode, things are better today than they were yesterday,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

This subtle progress is not dramatic, not exciting. It is easy to miss (=A, 결과) because a protopia generates almost as many new problems as new benefits. (=B, 원인) - 이러한 약간의 진보는 극적이지도, 흥미롭지도 않다. 프로토피아가 새로운 이점만큼이나 새로운 문제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해설의 용이함을 위해서 결과와 원인을 이 문장에서 각 부분을 A와 B로 나눠볼게!

The problems of today were caused by yesterday’s technological successes, and the technological solutions to today’s problems will cause the problems of tomorrow. (=B)

오늘의 문제는 어제의 기술적인 성공에 의해서 야기 된 것이고, 오늘날 문제들의 기술적인 해결책들은 내일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거는 앞 문장에서 a protopia generates almost as many new problems as new benefits. 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

This circular expansion of both problems and solutions (=B)

B가 뭘하게 하나는지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야, 즉 원인인 B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거 아니겠어? 바로 인과에 대한 빈칸이라고 할 수 있지. 인과는 두가지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B가 원인인 문장에서 인과를 읽은 적이 있지? 거기를 가져와보자.

It is easy to miss (=A, 결과) because a protopia generates almost as many new problems as new benefits. (=B, 원인)

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이 빈칸 앞부분까지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B가 A를 만듦으로, A가 들어가면 되겠네! A의 내용은 바로 'protopia'를 놓치기 쉽다. 라고 했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다면 protopia를 놓치기 쉽다! 겠네. 그걸 빈칸으로 써보자.

④ hides a steady accumulation of small net benefits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순이익의 꾸준한 축적을 보이지 않게 한다. - 이게 정답이겠지! hide는 miss에 대응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a steady accumulation of small net benefits over time는 결국 protopia 정의 그자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4번 선택지는 protopia를 가린다.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 a steady accumulation of small net benefits over time가 protopia 의 정의냐고? 첫문장을 기억해봐! Protopia is a state of becoming, rather than a destination. It is a process. In the protopian mode, things are better today than they were yesterday, although only a little better. 라고 했잖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는게 프로토피아니까! 이게 바로 그 정의인거지! 정답은 4번.

⑤ produces a considerable change in technological successes (가장 많이 찍은 오답, 16%) 오답이지! 인과추론 관계에 의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프로토피아를 놓치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기술적 성공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야.

[단어] state 상태 becoming 생성 destination 목적지 mode 방식 stem from ~에서 비롯되다 notion 개념 subtle 미묘한 generate 발생시키다 circular 순환적인 expansion 팽창, 확장 Enlightenment 계몽주의 civilization 문명 star 주연을 맡아 돋보이다 accumulation 축적

[해석] 프로토피아는 목적지라기보다는 생성의 상태이다. 그것은 과정이다. 프로토피아적인 방식에서는 어제보다 오늘, 비록 그저 약간 더 나아졌을 뿐이라도, 상황이 더 낫다. 그것은 점진적인 개선이나 가벼운 진보이다. 프로토피아적이라는 말에서 '프로'는 과정과 진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이 미묘한 진보는 극적이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다. 프로토피아는 거의 새로운 이점만큼 많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 쉽다. 오늘의 문제는 어제의 기술적 성공이 가져온 것이고, 오늘의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은 내일의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문제와 해결책의 이런 순환적 팽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순이익의 꾸준한 축적을 보이지 않게 한다. 계몽주의와 과학의 발명 이래로 줄곧, 우리는 매년 파괴해 온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작은 몇 퍼센트의 긍정적인 차이는 수십 년에 걸쳐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조합된다. 그것의 장점은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돋보이는 법이 없다.

[어휘] terminal 손을 쓸 수 없는 launch 출시하다, 내보내다 playlist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 예정 녹음 리스트 in heavy rotation 자주, 아주 많이 unparalleled 비할 데 없는 brutally 야만스럽게 tap 타진하다, 이용하다 word-of-mouth 구전의

[해석] 예전에는 인기 앨범을 내는 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라디오였다. 어떤 것도 라디오만큼 많은 사람에게 자주 다가가지 못했다. 노래가 라디오 방송 예정 녹음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이 어렵기는 했지만, 일단 라디오에서 자주 들리면, 그것은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MTV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인기 앨범을 만드는 (라디오)에 버금가는 길이 됐다. 그것은 새로운 음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수용 능력을 가졌지만, 한 세대에 대한 영향력은 비할 데가 없었다. 음반사들에게 그 때는 좋은 시절이었다. 그것은 매우 경쟁적인 사업이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사업이었다. 그들은 규칙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활용하여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록음악을 들려주는 라디오는 외관상 가망 없는 쇠퇴기에 있고, MTV는 더 이상 많은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음반사들은 해답이 온라인에 있음을 알고서, 수요 창출에서 전통 마케팅을 대신하는 구전의 힘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139

정답 ③

[2019학년도 수능]

[정답률] 37%

[Comment] 앞전에 어휘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어에서도 '논리관계'를 물어보곤 합니다. 국어에서만이나 복잡하게 사고과정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인과, 일반적 문장과 예시 문장, 대조 등 문장간의 논리관계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이는 어휘문제에서 '인과나 선후관계를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내용에서도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읽을 때,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장간의 인과, 역접, 대조 등도 생각하시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내용 파악 수준이 아니라, '논리적인 관계'까지 꼼꼼히 파악하여 지문을 독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문제는 2019학년도 수능 문장삽입 문제는 '인과'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인과를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therefore'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예측해볼 수 있었지만, 글의 소재가 낯설고, 어휘도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정답률이 37%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놓친 포인트,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미리 작성된 원고라 여투가 존댓말인점 양해바랍니다.]

[Comprehension] A round hill rising above a plain, therefore, would appear on the map as a set of concentric circles, the largest at the base and the smallest near the top.

- 주어진 문장을 볼까요? 평야 위로 솟아 있는 둥근 산은 지도에서 중심이 같은 원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 맨 아래 부분에 나타날 것이고, 가장 작은 원 가장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문장에서 'therefore'가 있으니, '원인과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물론 therefore 가 인과와 같이 결론을 내는 접속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요) 그럼 주어진 문장 앞에 올 문장으로 '평야 위로 솟아있는 둥근 산이 중심이 같은 원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를 인식하며 글을 읽어야만 합니다.

A major challenge for map-makers is the depiction of hills and valleys, slopes and flatlands collectively called the topography.

-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총체적으로 지형(topography)이라고 불리는 언덕, 계곡, 경사, 평지의 묘사라고 말하고 있네요.

This can be done in various ways. One is to create an image of sunlight and shadow so that wrinkles of the topography are alternately lit and shaded, creating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hape of the land.

- 이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는데, 그중 한가지의 방법은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지형의 주름이 번갈아가며 (alternately - 기출 어휘이므로 필수로 숙지해야 합니다) 빛이 비치고, 그늘지게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땅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문장이 나올 타이밍은 아니니 글을 이해해가며 읽어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①) Another, technically more accurate way is to draw contour lines - 1번의 Another은 앞전의 One과 형태가 맞네요. 주어진 문장이 1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면 주어진 문장이 빛과 그림자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니, 아니니 One 다음에 Another로 넘어가도 좋을 듯 하네요. contour lines은 '등고선'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학생들이 contour lines를 등고선임을 현장에서 해석해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contour 라는 단어를 윤곽 정도로 알고 있어서, 윤곽선으로 해석해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등고선으로 바로 해석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contour lines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석해보겠습니다. (물론 등고선 개념까지 같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내용으로 돌아와보시면, 앞전의 방법보다 좀 더 기술적으로 정확한 방법은 'contour lines'을 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②) A contour line connects all points that lie at the same elevation.
(③)

- A contour line이 뭐하는 것이냐면, 같은 높이 (elevation) 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잇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에 들어가기엔 앞문장이 그냥 A contour line을 그린다라는 내용이었으므로 들어가기엔 좀 그런 듯 하네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은 문장은 주어진 문장의 원인(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원인이므로)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이 주어진 문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정답은 3번일 것입니다. 주어진 문장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A contour line connects all points that lie at the same elevation. (원인) - 같은 높이에 있는 것들은 같은 점들로서 연결되어 진다.

A round hill rising above a plain, therefore, would appear on the map as a set of concentric circles, - (결과) 그러므로, 평지에서 솟아나있는 둥근 산은 일련의 중심이 같은 원들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낮은 높이에 있는 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선이 만들어질텐데, 그 선이 모양이 동그랴다면 충분히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수학까지 동원될 필요는 없지만, 원의 정의자체가 중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니까..ㅎ.. 그거 알아야 푸는거냐고 묻지마세요.. 그냥 중학교 수학이잖아요 하하)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충분히 3번으로 풀어 낼 수 있을 듯 합니다.

the largest at the base and the smallest near the top.

-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정보는 그 원이 클수록 아래에 있고, 작을수록 위로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등고선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 친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 등고선임을 Catch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이 그려지고, 또 높을수록 원이 작아지고, 작을수록 원이 커진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겠지요? 등고선임을 빨리 CATCH 했다면 저 위의 인과가 더 쉽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4번이나 5번을 찍은 친구들도 이 당시에 30%, 21%나 되었으므로,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문제의 핵심은 '원인과 결과'와 같은 논리적 관계도 문장삽입에서 생각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When the contour lines are positioned closely together, the hill's slope is steep; if they lie farther apart, the slope is gentler. (④)

- 4번과 5번을 고민하셨다면, 과연 '주어진 문장의 원인이므로' 4번 앞의 문장, 그리고 5번 앞의 문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셔야만 합니다. 일단 4번 앞의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he contour lines'이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그 언덕의 기울기는 가파르고, 떨어져 있다면, 기울기는 완만하기 때문에 (원인) - 평지에서 솟아나 있는 산은 중심이 같은 원을 가지게 되는 것(결과) 일까요? 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기울기는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평지에서 솟아나 있다 라는 것만으로 단순히 기울기가 완만한 것과 관련이 있거나, 가파른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평지에서 솟아나 있어도 가파를 수 있고, 완만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의 문장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기엔 굉장히 어색한 듯 합니다. 그러므로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Contour lines can represent scarps, hollows, and valleys of the local topography. (⑤)

- 이 문장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Contour lines이 가파른 비탈을 나타내고, 분지를 나타내고, 계곡과 같은 지역적 지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평지에서 솟아나 있는 산이 중심이 같은 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논리 관계는 일단 둘째치고, 해석이 어렵다!' / '설명문 같은 글의 느낌이라서 사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라는 말들이 이 문제의 먼저 우선하는 문제일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석이 어려울걸 방지하기 위해 구문을 하고, 단어를 외우는 것과, 글을 Natural 하게 읽어내는 유기성을 잘 따지는 독해 능력등과 문제 풀이 연습은 같이 가야만 합니다. 일단 이 지문에 나오는 어휘들, 구문들은 정말 어려운 몇 개 빼고는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해야하며,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문장삽입에서 '논리적 관계'를 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구문] One is to create an image of sunlight and shadow so that wrinkles of the topography are alternately lit and shaded, creating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hape of the land.

- so that은 ~ 하기위해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alternately는 번갈아가면서라는 의미를 가짐을 기억해두도록 하자.

[어휘] plain 평야 depiction 묘사 topography 지형 alternately 번갈아, 교대로 representation 표현, 묘사 contour line 등고선 elevation 고도 steep 가파른 gentle 완만한 hollow 분지

[해석] 지도 제작자들의 커다란 도전은 집합적으로 지형이라고 불리는 언덕과 계곡, 경사지와 평지의 묘사이다. 이것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지형의 주름이 번갈아 빛이 비치고 그늘지게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땅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더 정확한 또 다른 방법은 등고선을 그리는 것이다. 등고선은 동일한 고도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다. 따라서 평야 위로 솟은 둥그런 산은 가장 큰 동심원이 맨 아래부분에 그리고 가장 작은 동심원은 꼭대기 근처에 있는 일련의 동심원으로 지도에 나타날 것이다. 등고선이 서로 가깝게 배치되면 산의 경사가 가파르고, 등고선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등고선은 지역 지형의 가파른 비탈, 분지, 계곡을 나타낼 수 있다. 한눈에, 그것들은 지도로 그려진 지역의 고저가 큰지 작은지를 드러내는데, '복잡한' 등고선 지도는 많은 높은 기록을 의미한다.